

어린이날 녹지원 행사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꿈,꿈입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답습니다. 그래도 재미있습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짧게 인사만 하겠습니다. 뭐가 궁금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날입니다. 어른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보배라고.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희망입니다. 어른들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꿈, 꿈입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겁니다. 용기와 희망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건강하게 보이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몸이 허약해서 제대로 자랄지 사람 노릇할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놀고 공부해서 좋아졌습니다.

중학교 졸업 때 짬 돈 없어서 고등학교를 못 간다고 했습니다. 안 가도 좋다고 하다가 고등학교를 가서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니 대학을 못 가게 됐습니다. 사정으로 못 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건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한 결과입니다. 희망이 제일 소중한 겁니다. 용기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